

계량서지학 기반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

김병준**

이 글은 여러 디지털인문학 프로젝트와 연구에 참여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념사 혹은 지성사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쓴 것이다. 필자가 개념사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로 논문의 서지 정보와 계량서지학이다. 기존 개념사 연구에서는 문헌(잡지, 신문, 문학작품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개념의 역사적 변화 양상과 그 활용을 탐구해왔다. 사실 개념사 연구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는 과거 문헌을 텍스트 삼아 연구를 진행한다. 텍스트를 질적 방법으로 읽어내든,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든 연구의 원료는 과거 문헌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불온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꼭 과거 문헌만이 인문학 연구의 재료인가? 역사

* 필자는 현재 KCI 인문학 논문 25만 건의 서지 정보와 해당 논문 저자의 인구사회학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 인문학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박사학위논문을 작성 중이다.

**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 센터 위촉연구원, kuntakim88@gmail.com.

학자가 사료를, 문학 연구자가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자료는 텍스트가 될 수 없는가? 특히 개념사 연구에서 개념이 여러 지식의 총체라고 했을 때 지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텍스트는 무엇인가? 바로 연구자들이 매일 읽고 쓰는 논문이 아닐까? 논문에 담긴 서지 정보(제목, 초록, 주제어, 참고문헌 등)를 분석한다면 연구에 관한 연구, 즉 특정 학문 영역의 역사를 조망해 개념사 연구로서 가능성이 있겠다는 무모한 도전인 셈이다.

1. 한국 인문학계의 ‘웃픈’ 농담

한국 인문학계에는 웃기지만 슬픈 농담이 있다. 나의 논문을 읽어주는 사람은 단 세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명은 논문의 심사자이며,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다. KCI 도입과 BK/HK/SSK 등 실적 평가 위주의 학술진흥 정책이 맞물리면서 생긴 한국 인문학계의 자화상 같은 농담이다. 이 농담에 더해 혹자는 한국 인문학의 미래가 없다며 스스로 종언을 고하기도 한다. 필자는 (인)문학의 종언 같은 수사를 펼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웃픈 농담 속에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보았다.

내 논문을 읽어주는 사람은 세 명밖에 없다는 농담은 예상외로 통찰을 담은 말이었다. KCI에 2019년까지 게재된 인문학 대분류 논문은 약 25만 건에 달하는데 202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인문학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는 3.2건에 불과했다. KCI 시스템이 제대로 된 피인용 수 검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에 실제 평균 피인용 수는 3.2보다 좀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인문학 논문의 피인용 수 중앙값은 2건으로,

25만 건 중 반 정도의 논문은 2건 이하의 피인용 수를 기록한다는 것이다.¹ 논문 대다수가 인용되지 못하고, 매우 소수의 논문만이 수십, 수백 건의 피인용 횟수를 기록한다는 사실은 웃픈 현실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트워크 과학에서 멱 법칙(power law)은 매우 소수의 점(node)이 많은 연결(edge)을 차지함을 뜻한다. 이를 한국 인문학계에 적용한다면, 소수의 논문에만 많은 연결(인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인문학계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술계에서 중요한 텍스트의 선별과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 피인용 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다른 지표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에서 논문(연구자)을 바라본다면 IF(Impact Factor)에 ‘미쳐 있는’ 한국 학문장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²

2. 계량서지학과 인문학

아쉽게도 ‘새로운 발견을 했구나’ 하는 기쁨도 잠시였다. 왜냐하면 이미 해당 분야는 문헌정보학에서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5년 『Science』에 실린 유진 가필드의 역사적인 논문³으로 등장한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계량서지학의 발

1 물론 2021년 기준으로 게재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논문들은 그만큼 평균 이상의 피인용 수를 기록하기 어렵다.

2 필자가 어찌다 논문 서지 정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지 자세한 역정(歷程)은 부끄럽지만 다음의 팟캐스트 참고. ‘과정남 인터뷰 96화’, 어떤 디지털인문학 연구자와의 대화, <https://www.podbbang.com/channels/7549/episodes/24123096>.

3 Garfield, E. 1955, Citation indexes for science. Science, 122(3159), pp.10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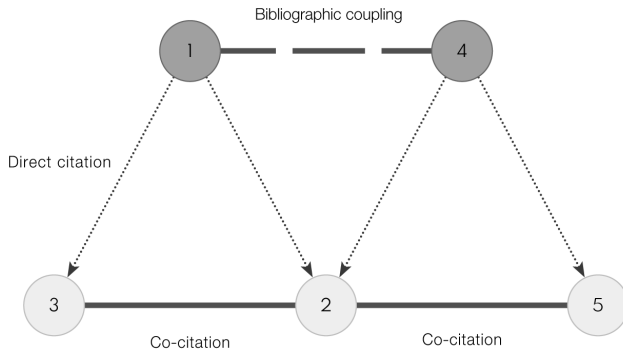


그림 7-1 서지결합 분석과 동시인용 분석

출처: <https://pythonhosted.org/tethne/tutorial.bibliocoupling.html>.

전을 가져왔다. 계량서지학은 통계나 수학같이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해 논문이나 문헌 등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문헌 정보 기반의 계량서지학을 넘어 모든 형태의 정보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계량 정보학(Informetrics)까지 확장되었다.⁴

계량서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지표는 바로 인용이다. 주지하듯 인용은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학술 참여 행위로 계량서지학에서는 인용을 분석해 그간 축적된 지식의 양과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 인용에 관련한 계량서지학 분석 방법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을 소개한다. 하나는 서지결합 분석(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동시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이다.

〈그림 7-1〉은 서지 결합과 직접 인용, 동시 인용의 차이점을 보여준

4 계량서지학(계량정보학)과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남대 정유경 선생님의 ‘한림과학원 2021 디지털인문학 특강’을 참고(〈개체 수준의 디지털인문학 연구 주제 분석 — 계량서지학적 접근〉, https://youtu.be/h4Ov_T_IF4w).

다. <그림 7-1>의 각 점은 논문이며 1번과 4번이 동일한 2번 논문을 직접 인용했을 때 1번과 4번은 서지결합 관계라고 부르며, 반대로 참고문헌의 입장에서 1번 논문이 3번과 2번 논문을 동시에 인용하면 3번과 2번 논문은 동시 인용 관계를 맺는다. 두 분석 방법론 모두 인용 네트워크(citation network)를 활용한 방법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 피인용 횟수를 넘어 인용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논문이 주목받았는지 분석할 수 있기에 인용 분석은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한다거나 앞으로 주목받을 과학기술을 전망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문학자에게 계량서지학은 낯선 분야이다. 왜냐하면 상술했듯 SCI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량서지학이 자주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자 사회(scientific community)나 과학 지식사회학 같은 개념에서 보듯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 커뮤니케이션 분석이 이뤄졌다. 인문사회과학에서 계량서지학 방법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은 아마도 ① 인문사회과학이 — 특히 인문학이 — 과학기술 분야보다 학문의 호홉이 길어 논문보다는 고전 자료나 단행본 위주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고, ② 세부 전공 분야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다 보니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활발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년 만 건이 넘는 인문학 논문이 생산되며 2019년에는 1만 8000건이 넘는 논문⁵이 게재될 정도로 KCI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질적으로 성장했는지는 모르나 KCI의 양적 팽창은 한국 인문학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그간 인문학계에서 자신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연구

5 등재 후보, 비정규 논문 포함.

를 조망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한국 인문학계의 ‘주요’ 학술지들은 매년 초나 말에 당해의 연구를 되짚어보는 리뷰 논문을 꾸준히 실어 왔다.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섹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고와 전망」 특정 세부 전공의 최근 2년간 주요 논문을 연구자가 직접 선정해 소개하며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지금 이 글이 실리는 『개념과 소통』의 「동향과 전망」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매년 2만 건 가까운 논문이 쏟아지는 한국 인문학계를 한 사람의 연구자가 거시적인 시선에서 조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3. 과학 혁명의 구조? 인문학 혁명의 구조

토머스 쿤(Thomas Kuhn)의 책 『과학 혁명의 구조』는 현대의 고전이다. 그가 제창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은 일상생활에서 쓰일 정도로 클리셰(Cliché)가 되었다. 필자가 여기서 쿤의 이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패러다임 전환이 인문학의 지식 구조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안적 패러다임이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문학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쿤의 주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되었고, 인문학에서 쿤이 말한 대로 기존 정상과학을 뒤흔들 정도(ground-shaking)로 강력한 혁명은 나온 사례가 드물다. 또한 인문학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고 기준 자체가 성립되기도 힘들다.

쿤의 이론을 인문학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지라도 그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KCI 도입 이후 약 20년간 한국 인문학의 연구 주제 변화를 포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쿤의 전제는 과학 지식이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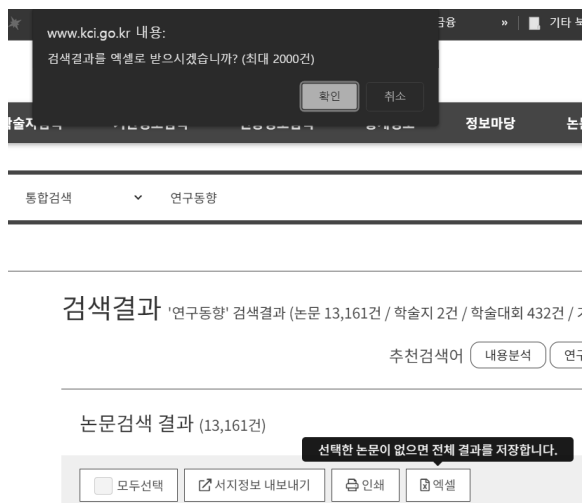


그림 7-2 KCI에서 서지 정보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형적인 축적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배치되는 지식이 만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인문학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처럼 과거 지식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패러다임 전환처럼 사장되는 연구 방향이 있고 반대로 부흥하는 연구 주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KCI 시스템이 만들어낸 양적 성장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과거 KCI 시스템 이전에는 한국 인문학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보기 위한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했고, 많은 학술지가 문예지, 단행본 등으로 비표준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KCI와 RISS 시스템의 등장과 개선으로 누구나 손쉽게 학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연구 동향’ 제목의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각 학술지의 창립 30~40주년 기념으로 해당 학술지의 모든 논문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KCI는 2021년 현재 서지 정보 내보내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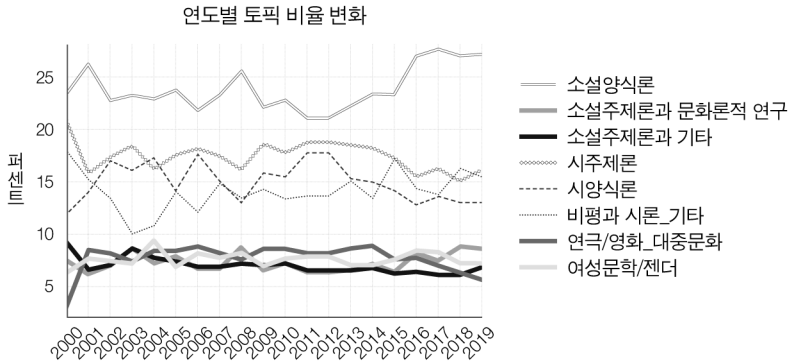


그림 7-3 한국 현대문학 박사논문의 연도별 연구 주제 토픽 변화

출처: http://www.klbbks.com/wiki/index.php/DDMKL#.ED.86.A0.ED.94.BD_.EC.83.81.EB.8C.80_.EB.B9.84.EC.A4.91.EC.9D.98_.EB.B3.80.ED.99.94.EC.99.80_.ED.86.A0.ED.94.BD_.EB.84.A4.ED.8A.B8.EC.9B.8C.ED.81.AC.

능을 최대 2000건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수천, 수만 건의 서지 정보를 이른 시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도 했다(그림 7-2).

RISS/KCI가 연구자들에게 전보다 수월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서지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인문학 연구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필자가 2020년 가을에 상허학보에 발표한 연구⁶도 이런 데이터 접근성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중 현대문학 전공 논문 1528편의 서지 정보 중 텍스트 정보(제목, 초록, 주제어, 목차)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KCI와 달리 인용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 분석은 시행하기 어려웠지만, 연구 토픽과 키

6 김병준·천정환, 2020, 「박사학위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443~517쪽. 지면 한계상 표현하지 못한 그림이나 표는 다음 위키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www.klbbks.com/wiki/index.php/DDMKL>.

워드의 변화로 20년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충분했다(〈그림 7-3〉).

4. 서지학 기반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차례이다. 앞에서 KCI 등재지 시스템의 양적 발전이 분석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수집 편의성을 제공해 계량서지학을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렇다면 계량서지학과 개념사 연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필자 역시 글 첫머리에 말했듯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도전이기에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기존 개념사 연구, 특히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한 개념사 연구에 인용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상술했듯이 인용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수백, 수천 편의 문헌을 읽지만 논문 한 편에 수십 편의 문헌만 참고문헌에 포함될 수 있기에 연구자는 자연스레 인용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즉 연구자는 기존 문헌을 디딤돌 삼아 지식이나 개념을 창출한다. 이를테면 인용이 인용을 낳고, 그 안에서 개념이 경쟁하기도 하고 합의를 이루기도 하는 그 과정이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한 개념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기어 분석이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는 단어들의 변화 양상만으로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간에 따른 공기어의 변화 사이에 있는 특이점을 연구자가 해당 텍스트를 읽으며 다시 분석해야 한다(물론 연구자가 텍스트를 가까이서 읽는 과정은 연구에 꼭 필요한 절차이다). 필자는 공기어 분석(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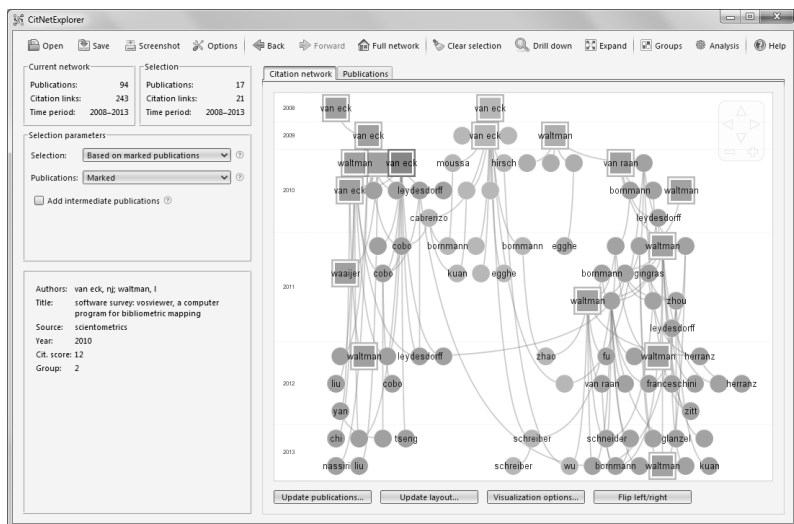


그림 7-4 시계열 인용 분석 전문 프로그램 - CitNetExplorer

출처: <https://www.citnetexplorer.nl/>.

분석이 가진 빈 공간을 인용 분석으로 채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7-4>는 시계열 인용 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CitNetExplorer'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지 정보 특화 소프트웨어로 논문과 논문의 인용 관계망을 시간 순으로 보여준다. 인용이 인용을 낳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용으로 구성된 지식(개념)의 군집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그림 7-4>의 각 점은 논문을 뜻하며 군집을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

이보다 좀 더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인용 분석 소프트웨어는 CiteSpace⁸와 Vosviewer⁹이다. CiteSpace는 미국 Draxel 대학교의 정보학

7 아쉽게도 CitNetExplorer는 Web of Science의 논문 서지 파일만 데이터로 투입 가능한 단점이 있다.

8 <https://citespace.podia.com/>.

9 <https://www.vosview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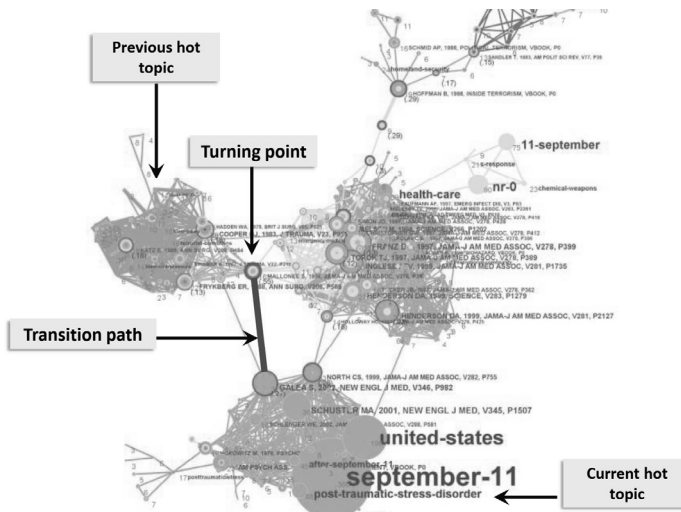


그림 7-5 CiteSpace로 분석한 연구 토픽 변화 시각화

출처: Chen, Chaomei, 2021, Delineating the Scholarly Landscape of a Research Field. 10.13140/RG.2.2.20144.69127, p.74.

과 교수인 차오메이 첸(Chaomei Chen) 교수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동시 인용 분석을 비롯해 군집분석, 버스트(burst) 분석(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인용이나 언급이 늘어나는 논문이나 주제어), 타임라인 분석(시계열 인용 분석) 등이 가능한 서지 정보를 위한 종합 분석 도구이다. Vosviewer는 앞서서 소개한 CitNetExplorer를 개발한 네덜란드 레이던(Leiden)대학교의 연구 팀이 만든 서지 데이터 전문 시각화 툴이다. 여기서는 CiteSpace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7-5>는 CiteSpace로 연구 토픽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전에 주목받던 토픽(Previous hot topic)이 전환점이 된 논문(Turning point)과 전환 경로(Transition path)를 통해 현재의 주목받는 토픽(Current hot topic)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단어 분석의 한계를 깨닫고 단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중심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더 다채로운 개념사 연구가 가능했듯이, 개념사적으로

중요한 저작들도 단순 피인용 횟수만이 아니라 인용 네트워크상에서의 허브나 중심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면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¹⁰

앞에서부터 계속 KCI나 RISS 등 최근 20~30년 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었지만, 계량서지학은 문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개념사 연구에서 자주 활용하는 고전 문헌도 계량서지학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고전 문헌은 논문처럼 규격화된 서지 정보(제목, 초록, 주제어, 참고문헌 등)가 없기에 연구자가 새롭게 서지 사항을 입력하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인용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전 문헌을 활용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한국 인문학(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왔다. 김혜진¹¹은 해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서 한국학에 관련된 논문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동시 인용 분석, 주경로 분석을 활용한 한국학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시도를 했다. 송민선¹²은 KCI의

10 계량서지학을 활용한 지식 구조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Chaomei Chen과 연세대학교 송민 교수가 쓴 책 『Representing Scientific Knowledge: The Role of Uncertainty』를 추천한다. CiteSpace를 비롯해, 텍스트 마이닝 등 여러 방법론으로 지식 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토머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와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시행착오가 서론에 소개돼 있다.

11 김혜진, 2020,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학 지식구조 파악: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179~200쪽.

김혜진, 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학 주경로(Main Path) 분석: '한국'을 키워드로 포함하는 SCOPUS 문헌을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7(3), 253~274쪽.

12 송민선, 2015,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25~157쪽.

송민선·고영만, 2015, 「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거시적 지식구조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21~236쪽.

한국학 관련 논문 서지 정보를 계량서지학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인문학 전공자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서로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고전 문헌을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인문학 연구자의 협업으로 새로운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례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의 근대한국학 DB¹³ 관련 연구이다. 근대한국학DB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는 1900년대 초반의 잡지나 신문 공공데이터에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색인어나 주요 개념어를 추가해 만들었다. 정유경¹⁴은 해당 DB를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국한문 혼용 색인어를 추출하는 과정과 『황성신문』 주제를 시계열 토픽 분석으로 분석했다. 기존에 공공데이터로 존재하는 고전 문헌을 그대로 연구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문학 연구자들이 스스로 해당 문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태깅하고 해당 요소를 기반으로 인용 분석을 한다면 더 풍부한 개념사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에서는 이를 개체계량학(Entitymetrics)¹⁵이라고 부른다. 개체계량학은 문헌에 있는 정보를 개체(entity)로 보고 거시적인 개체(참고문헌, 저자, 제목 등)뿐만 아니라 본문의 단어 표현(명사, 형용사 등), 사용한 방법론, 데이터 세트 등 미시적인 개체까지 확장해서 지식 구조 파악하는 방법론이다. 기존 개념사 연구에서 공기어/키워드 분석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에 대상이

13 <https://cmks.yonsei.ac.kr/cmks/database.htm?ch=1>.

14 정유경, 2020,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 분석법 — 『황성신문』 논설을 대상으로」, 『역사문제연구』 24(1), 133~159쪽; 정유경·반재유, 2019, 「국한문 혼용 텍스트 색인어 추출기법 연구 『시사총보』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6(4), 7~19쪽.

15 Ding, Y., Song, M., Han, J., Yu, Q., Yan, E., Lin, L., & Chambers, T, 2013, Entity-metrics: Measuring the impact of entities. *PloS one*, 8(8), e71416.

되는 개체의 범위가 더 넓다. 예컨대 기존 개념사 연구에서는 명사 단어의 단어 분석에 치중했다면, 개체계량학에서는 문헌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에 들어간 불확실성(Uncertainty)에 관한 형용사 표현까지 분석에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렇듯 계량서지학은 개념사 연구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차용되지 않은 방법론이었지만 이미 우리도 모르게 계량서지학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전 문헌에 계량서지학을 적용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접수일(2021.11.14), 심사 및 수정일(1차: 2021.12.17., 2차: 2021.12.21), 게재 확정일(2021.12.22)